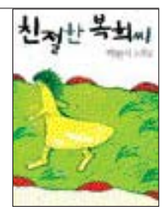
북스

Books

위선과 욕망 사이 씁쓰레한 인간 해부

친절한 복희씨 박완서 지음



희수(喜壽)의 여류 소설가 박완서(77·사진)씨가 '너무도 쓸쓸한 당신' 이후 9년 만에 새 소설집 '친절한 복희씨'를 출간했다. 저자의 웅숭깊은 문체와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여전해 그의 신작을 기다려왔던 '완빠'(박완서 마니아)들을 전혀 실망시키지 않을 듯하다.

지난 2001년 이후 쓴 9편의 단편소설로 구성된 '친절한 복희씨'는 40세에 등단해 37년간 쌓아온 저자의 문학적 성과에 '노년문학'이라는 새 지평을 열고 있다.

활발히 작품을 쏟아내는 40~50대 또는 20~30대 작가들의 작품에서 봐왔던 작가 또래의 주인공 자리를 60~70대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그렇다. 주인공의 나이야 온전히 '작가 맘대로'지만, "운명에 순응하고, 세상에 대한 깊은 눈과 기품을 지닌 여유"(평론가 김병익)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작품 속 주인공은 대개 그리움을 지닌 채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그 남자네 집'의 '나'는 후배가 이사해 간 돈암동 일대를 찾아가 유년과 청년기를 보냈던 기억을 떠올린다. 나와 같은 동네에 있던 '그 남자네 집'을 찾아서는 아름다운 청년 '그'와 구슬 같은 처녀 '나'가 벌였던 '플라토닉 러브'를 그리워하며 커피숍에 들르지만 이내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불편함을 느낀다.

2001년 황순원문학상 수상작인 '그리움을 위하여'의 주인공은 환갑 진갑이 지난 여덟 살 터울의 사촌동생에게 평생을 상전처럼 굴었다. 그런 동생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떠나자, 이렇게 고백한다. "그립다는 느낌은 축복이다. 그동안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럴 것 없이 살았음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메말랐는지도 느끼지 못했다."(40쪽) 상전의식을 버리고 자매애를 찾자, 그리움이라는 '축복'이 똬리를 튼 것이다.

저자의 글이 살아 숨쉬는 것은 문장의 속도와 진중한 경쾌함, 여전히 빛나는 삶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 때문이다. 40대 후반의 중년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은 '마흔아홉 살'의 주인공 카타리나는 노인 봉사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지만, 시아버지의 팬티를 벌레 다루듯 하는 장면을 회원들에게 들키면서 비난받는다. 회원들의 비난을 엿듣게 된 카타리나가 "난 왜 이렇게 겉 다르고 속 다를까"라며 인정하자, 친구는 "인간관계 속엔 위선이 개입하게 돼 있어. 꼭 필요한 윤활유야"(107쪽)라고 대꾸한다.

결코 순진하지 못한 인간의 속내는 '친절한 복희씨'에서 극대화된다. 강탈로 부부관계를 맺은 남편이 중풍으로 경련을 일으키자 내심 "불쌍하지 않고 고소"해 하는 가 하면, 며느리 때문에 생긴 자식 "편애의 쾌감은 독하고 날카롭"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래도 해피 엔드'의 주인공이 전원생활을 꿈꾸며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간 뒤 처음 서울로 가는 동창 모임 길에 버스와 지하철에서 당하는 수모를 택시기사가 '사모님', '멋쟁이', '외국에서 오래 사시다' 등의 한 문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듯, 책 속 이야기들의 마무리는 '그래도 해피 엔드'다.

평론가 김병익씨가 언급한 "실버 문학의 수요의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부닥치는 치열한 행동이나 미숙한 연령들이 보이는 위험한 열정과는 다른 형태의 삶과 내면에 자의식과 자부심을 가진 유한층 할아버지" 세대의 내면을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저자의 노년에 대한 성찰은 의미가 커보인다. 〈문학과지성사·9천5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김용의 '의천도룡기' 최종본 8권 번역·출간

20세기 중국 신(新)고전이라 불리는 김용의 '의천도룡기'(전 8권)가 정식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번역·출간됐다. 2003~2004년 2년간 저자가 세심한 고증을 거쳐 수정한 최종 3판본을 번역한 것이다.

'의천검'과 '도룡도'의 행방을 둘러싼 무림 고수들의 혈투, 성곤의 원수를 갚기 위한 금모사왕의 분투, 명교인들과 육대문파간의 오랜 은원관계 등이 장대한 스케일로 강호를 장식한다.

중국 무협소설의 계보를 잇듯, 저자는 100여명에 이르는 인물들 모두에 저마다 개성과 사연을 불어넣었다. 쿠빌라이, 주원장 등 실존인물을 비롯한 소설 속 인물들의 인간적 숨결과 고뇌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생동감을 더한다.

〈김영사·각 권 9천500원〉

한국 호텔은 한강의 기적, 정경유착의 표상?

도시의 창, 고급 호텔 발레리 줄레조 외 지음

호화스러운 '고급 호텔'은 많은 현대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호텔의 기본 기능이 '숙박'임에는 틀림 없지만 오랜 기간 호텔, 그것도 '고급호텔'은 단순한 잠자리 이상의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분석한 '아파트 공화국'의 저자인 발레리 줄레조(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학 담당) 교수 등 프랑스의 지리학자와 건축학자가 집필한 '도시의 창, 고급 호텔'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고급 호텔의 변천을 통해 각 나라의 발전 과정과 생활 양식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특성까지 살펴본 책이다.

책은 한국을 비롯한 상하이의 고급호텔, 홍콩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과 페닌슐라 호텔, 료칸의 전통을 이어받은 일본 호텔 등 아시아 다른 지역의 고급 호텔 변천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들은 아시아의 고급호텔은 서구 모델을 수입한 것은 맞지만 급격히 발전해온 아시아 도시들의 사회적 특수성이 진하게 배어 있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특히 저자들은 서구와는 달리 아시아의 고급호텔들이 세계 각국의 음식을 선보이는 식당, 결혼식을 포함한 각종 연회장, 피트니스 클럽, 심지어 제과점과 나이트클럽 등 현재 중산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는 '호화롭고 자족적인 소우주를 구현한 장소'라는 데 흥미로움을 느낀다.

한국의 고급호텔이 과거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형태의 공간이라고 진단한 한국편의 저자 발레리 줄레조는 한국 고급 호텔의 시작을 1914년 완공된 5층짜리 조선호텔로 규정한다.

이후 한국 호텔의 변천사는 한국전 참가자인 월튼 워커 중장을 기린 워커일 호텔,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아이콘인 롯데호텔, 정경유착의 고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으로 이어져 왔다는 분석이다.

저자는 또 한국의 고급호텔은 재벌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공간이자, 대한민국 상류층임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식' 같은 곳이라고 말한다.

한국 관련 글들의 경우 역자가 각주를 붙이기만 했지만 통계들이 1999년, 2000년을 기준으로 한 자료라는 점에서 아쉽다. 〈후마니타스·1만7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책

▲위대한 성자 프란체스코='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1883~1957)의 장편소설. 저자의 서거 50주년을 맞아 번역·출간됐다. 성인 프란체스코(1182~1226)와 함께 했던 레오 형제의 기록 형식을 띠고 있다. 〈애플북스·1만9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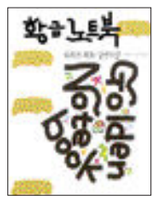
▲꿈과 희망, 버락 오바마의 삶=최초의 흑인 미국 대통령을 꿈꾸는 버락 오바마의 평전으로 저널리스트 스티브 도허티가 썼다. 주변의 증언 등 촘촘한 취재를 통해 미국인들이 왜 오바마에게 열광하는지, 오바마가 각종 편견을 딛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등을 짚어본다. 〈송정문화사·1만2천원〉

▲마돈나='공중그네'의 일본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2002년 작 장편소설. 남성 군상을 담은 이야기로, 저자 특유의 통쾌한 폭소와 그 속에 담긴 현실 비판 등이 잘 버무려져 있다. 42살의 결혼 15년차 만년 과장 하루히코가 신참 여직원에게 온 마음을 빼앗기는데…. 〈풀하우스·1만1천원〉

▲미술관의 쥐=미술학 박사 출신 추리소설가 이은씨의 미술추리소설. 유명 화가의 모작을 둘러싼 살인사건을 통해 '미술관의 꽃' 큐레이터와 화가의 숨막히는 지적 게임이 펼쳐진다. '신정아 사건'으로 드러난 한국 미술계의 다양한 이면들을 접해볼 수 있다. 〈예담·9천800원〉

▲클래식 명곡을 낳은 사랑이야기=일본 토호가쿠엔대학 음악학부 니시하루 미노루 교수가 음악의 거장들이 남긴 사랑과 그 속에서 탄생한 명작을 소개한다.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등 26명 음악가들의 개성처럼 다양한 사랑이야기는 클래식 음악 입문기로도 손색없다. 〈문학사상사·1만2천원〉

▲필름 속을 걷다=조선일보 기자 출신 이동진씨가 영화 속 풍경으로 떠나는 기행에세이를 썼다. 저자는 영화에 등장했던 곳을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의 인상적 장면이 현실에서 어떤 형태와 시간으로 남았는지 등을 찾는다. 특유의 감수성이 잘 녹아있다. 〈예담·1만2천원〉



▲황금노트북1=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도리스 레싱의 장편소설로, 2·3(완결)권은 이달 말에 출간될 예정이다. 1962년 출간된 저자의 대표작이자 1976년 프랑스 '메디치 상' 수상작이다. 한 여성 작가의 초상을 통해 20세기 인종차별, 여성운동 등을 보여준다.〈문학에디션뿔·1만3천원〉

▲아프리카 미술기행=편완식 세계일보 문화전문기자가 쓴 기행문. 김종우(한국화), 권순익(서양화)씨 등 두 화가가 동행했다. 이들은 여행길에서 마주치는 풍경과 영감을 풀어내고, 아프리카 현지 작가와 전문가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은 뒤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즈덤하우스·1만5천원〉

▲현장에서 만난 20세기=보도사진 전문 에이전시인 '매그넘' 소속 사진기자 및 작가들의 사진집. 전세계 23개국에서 동시 출간됐다. 1947년부터 2006년까지 60년간 찍은 사진 300여장이 실렸다. 로버트 카파, 베르너 비쇼프 등 20세기 큰 사건의 현장에 있던 이들의 땀방울이 느껴진다. 〈마티·5만4천원〉